

Well Being Guide

제208호

의료정보

국내 최초 고품질 전문 사이트
www.zanidip.co.kr

제3세대 칼슘 채널 차단제

LG생명과학

ZANIDIP
Lercanidipine

M E D I C A L I N F O R M A T I O N

신년 특집 II 호

최신치료동향 — 당뇨병 이제 절단하지 않아도 된다

새해 인물포커스 — 한미약품 임선민 사장

한독약품 김영진 회장

보령제약 김상린 사장

의료계 소식 — 산재의료관리원, 고객만족도 매우만족 평가

질환특집 — 자살의 덫에 빠진 사람들, 우울증

국내외 R&D현황 — 생명연, 간기능 진단 휴대폰 개발

국내외 단신 — '녹차'가 전립선비대증 예방

한국건강정보센터 발행

표지 인물

ISO 9001인증받아
최상의 품질경영 모범 보이는

명동안과 **김재호** 원장

명동안과
원장 김재호

ISO 9001인증받아 최상의 품질경영 모범 보이는

명동안과 **김재호** 원장



명동안과(공동원장 김재호, 송기영, 노제헌)가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9001 인증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명동안과는 2005년, 강남성모병원장 및 서울백병원 21C안과병원장 등을 지낸 안과학계의 거목 김재호 원장이 합류하면서 안과 드림팀을 이루며 최고의 의료진을 비롯, 양질의 진료와 업무시스템으로 품질경영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확장 이전하면서 내·외적 특허 위해 매주 교육

병원 입구에서부터 도우미에게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접수 데스크로 이동하면, 간호사들이 '어르신, 또는 '어머님'이라는 친근한 호칭으로 환자가 아닌 가족처럼 편안하게 맞아준다.

ISO 9001 인증을 취득한 병원답게 확실히 차별화 된 서비스가 병원 입구부터 느껴진다. 지난해 4월 명동의 명소인 하이해리엇빌딩 8층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내, 외적으로 한층 질 높은 진료환경을 구비한 명동안과.

"병원을 넓혀 옮기면서 외적인 시설과 질적인 부분 모두에서 우리만의 특허를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전직원이 매주 친절 교육 및 병리 수칙 사항 등, 품질경영 교육을 받았다"는 김 원장.

이러한 교육 결과 병원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다. 앞서 언급했듯 호칭부터 바뀌어 아주머니를 어머니로, 노인분들은 어르신으로 부르며 부모님처럼 대하고, 안과라

는 특성상 잘 안 보이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약국이나 택시 타는 곳까지 모서다 드리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은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ISO 9001 인증 시행처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관리 및 평가를 받는다. 입구에서 친절한 안내를 해 주는 도우미도 그곳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의료진들과 환자 모두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각막이식술의 명성, 개원가에서도 있다

김 원장은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강남성모병원 안과과장 및 병원장을 거쳐 2002년부터는 서울백병원 21C안과병원 원장으로 재임했다. 2005년 5월 정년퇴임과 함께 송기영 원장의 초청으로 명동안과의 공동원장으로 합류하게 되면서 노재현 원장과 함께 명동안과의 트리플 드림팀이 구성된 것.

한편 83년 개원한 명동안과는 명동에서도 제일 오래된 안과로 수술 많이 하는 병원으로 유명하다. 라식, 백내장은 물론, 김 원장이 합류하고부터 대학병원에서도 어려워하는 각막 이식술도 1년에 20여건 가량 시술하고 있다.

특히 라식 수술의 경우, 91년 김 원장이 안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 강남성모병원이 국내 대학병원 중 가장 먼저 시작했고, 개원가에서는 2~3년 뒤 명동안과 송기영 원장이 제일 먼저 시작했으니, 그야말로 안과계 드림팀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 것.

현재 김 원장은 전공인 각막 이식술과 백내장 수술분야를 맡고 있고, 원하는 환자에 한해 라식수술도 병행하고 있다.

송 원장은 주로 라식 수술 및 안검하수, 쌍꺼풀 등의 안성형 분야를 맡고 있으며, 노 원장은 백내장과 라식 수술 분야를 맡고 있다.

명동은 국내 뿐 아니라 일본서도 원정 시력교정술을 많이 받으러 오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한때는 많이 왔는데 일본에서 텀핑 라식을 시작하면서 조금 줄어든 편”이라며 “일본 내에서도 가격이 많이 싸졌기 때문에 일본 환자들은 줄었지만, 수술 기술은 우리가 훨씬 우수한 편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작년, '자랑스러운 가톨릭의대인'으로 선정돼

그동안 국내 안과학계에서 큰 역할을 해 온 김 원장은 작년 12월 '제5회 자랑스러운 가톨릭의대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명동안과 공동원장인 김재호 원장(앞줄 가운데)과 송기영 원장(앞줄 오른쪽), 노재현 원장(왼쪽) 및 의료진들

그는 국내 최초로 카나도형 인공각막 이식술을 성공시키는 등 과거 40여년 동안 10만건 이상의 백내장 수술과 2000건 이상의 각막이식술, 5000건 이상의 라식 수술을 시행하며 교의 위상을 높여 왔다는 이유다.

또한 김원장이 개발한 고도근시에 대한 새로운 라식수술인 각막편-라식(flap-LASIK)이 2005년 세계가 공인한 미국의 국제 권위지 Journal of Cataract and Refractive Surgery에 게재되기도 했다.

“라식 수술에서 잔존 각막이 250~300 마이크론 이하일 때에는 흔히 각막이 얇아져 돌출현상이 나타나면서 고도 근시가 다시 진행되는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라섹 수술을 권해야 했습니다. 각막편-라식은 이런 환자들에게 엑시머레이저에 의한 각막절삭을 각막실질부에는 안전한 정도만큼 시행하고, 나머지 근시만의 추가 절삭을 각막편 뒷면에 동시 시행함으로써 합병증 없이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대안 수술법이지요.”라고 말하는 김 원장. 이처럼 그는 활발한 학술활동과 명성을 개원가에서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극빈자 대상 무료 수술도 시행

명동안과는 의료봉사에도 앞장서고 있다. 동사무소를 통해 요청을 받아 한 달에 약 10여명의 극빈자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시술하고 있는 것. 또한 작년에는 송기영 원장이 파키스탄 카라치 소재 선한 사마리아병원에 백내장 수술기구를 기증하고, 백내장수술을 시행하기도 하는 등 인술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안과 분야의 최고의 드림팀을 구성해 ISO 9001 인증으로 최고의 품질경영까지 선도하는 명동안과. 이처럼 최고에서도 최상을 추구하는 모습은 경쟁이 심화되어 가는 의료시장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문** 〈문선희 기자〉